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연구

남영숙

(한국교원대학교)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Unification

Young Sook Na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n the incipient stage a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t also emphasizes ideology education rather than sustainability.

Secondly, the suggestion for the unification and the synthesizing of its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3-stages of unification process. It can be presented as a role 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fied Korea and consciousness and practical effort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macro-view on the integration of socio-eco gab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ey 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sustainability,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04-2001-000-00292-0).

** Corresponding author: ysnam@knue.ac.kr, Tel / Fax: 043-230-3762

I. 서론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과 함께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남북한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의 이질화는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동질성 및 정체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통일 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경우,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분단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 교육 체제 정비, 독일 문제 교육 지침 정립, 동서독간의 문화 협정, 과학, 기술 협정 등을 체결하여 학문, 학술, 교육 분야의 관계 증진 및 교류를 이루어냈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인 BLK-21(Bund-Länder-Kommission Program 21)을 통해 서독과 동독의 상이한 체제에서 파생되어 온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이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Fuchs, 1997; Nam, 1997; Haan, 2002). 또한, 동서독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독 지역의 환경 문제와 환경 특성을 환경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중심의 환경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aan, Mann, Reid, 2000; Nam, 1997).

국내의 경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교과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남북한 교육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해 도덕, 사회, 국어, 역사 교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 교육 과정 및 과학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박광서 외, 2004). 국내 교육 분야의 남북한 비교 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반공론적 시각, 남·북한 비교론적 시각,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통합론적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통합론적 시각에서는 북한교육의 이해, 남·북한 교육비교 그리고 남·북한의 교육 통합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한만길, 1996; 한만길 외, 200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난 환경교육의 역할과 시사점에서 볼 때, 환경교육은 향후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남북한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의 이질화를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북한 환경교육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이순희, 1998; 김종권, 2003; 김종권·남영숙, 2003; 이원덕, 2004; 이수미, 2005)는 주로 남·북한의 비교론적 시각, 남북한 교육 비교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환경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고 남북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통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생물교과서와 지리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 환경교육의 환경교육 목표, 환경교육 내용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방안을 모색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북한은 남한처럼 독립과목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 내 환경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최돈형 외, 1998). 그러나 북한의 과학교과 중 물리, 화학 교과서는 순수 자연과학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남한의 환경교육과 비교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서의 환경관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의 지리교과는 인문지리의 내용만을 다루는 남한의 지리교과와 달리 남한, 북한, 그리고 세계의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남한의 지구과학과 유사성이 높은 지형·지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표 1> 연구 대상

교과	교과서	학년(출판년도)
과학 교과	생물	중학교 2(2002), 고등중학교 3(1990), 중학교 4(2002), 고등중학교 5(1990), 고등중학교 6(2002)
		고등중학교 1(1995), 고등중학교 2(1990), 고등중학교 3(2001), 고등중학교 4(1990), 고등중학교 5(1991)
지리 교과	지리	고등중학교 1(1995), 고등중학교 2(1990), 고등중학교 3(2001), 고등중학교 4(1990), 고등중학교 5(1991)

환경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김종권·남영숙,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과 중 환경관련성이 매우 낮은 물리, 화학은 제외하였으며, 북한의 중학교 생물교과서 5권과 지리교과서 5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연구 대상 교과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북한자료센터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문헌연구 방법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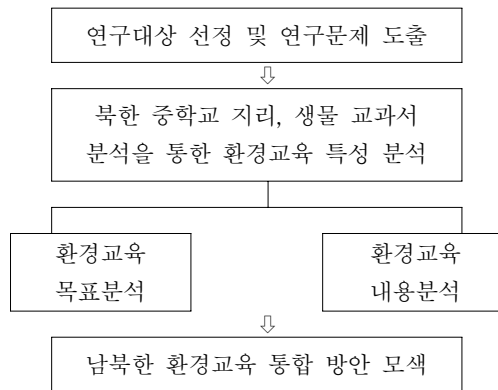
첫째, 북한 교과서 및 분석도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북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의 환경관련성을 확인하고, 환경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북한 환경교육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교과서에서 분석된 북한 환경교육의 특징과 남북한 교육통합 관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면담 방법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 과정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북한 교과서의 명칭이 고등중학교와 중학교로 명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교과서 명



<그림 1> 연구절차도

칭에 따른 교과서 분석의 제한점 여부이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과 북한자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발행 연도의 경우 같은 교과서 내에 학년별 교과서 발행 연도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최신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하는지를 문의하였다.

면담 결과 2002년을 기점으로 북한 교육 과정 편제가 바뀌어 기존의 고등중학교가 중학교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 교과서 명칭이나 바뀌거나 교과서가 새로 개발되어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교과서 체계 및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교과서 명칭을 중학교 교과서로 통일하여 진행하였다.

3. 분석 도구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환경교육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 방안과 연계하여 적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중학교 수준의 생물교과서와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환경목표, 환경교육 내용분석 도구 개발은 다음과 같다.

<표 2> 환경교육 목표 분석 준거

목표	목표 상세화
지식 (Knowledge)	-자연 환경의 구성과 관련된 기본 개념 -자연환경과 환경문제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능 (Skill)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의 과학적 탐구
태도 (Attitude)	-자연에 대한 감수성 -자연현상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실생활의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
참여 (Participation)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의 탐구능력을 실생활에서의 활용

* 출처 : 환경부, 1999.

가. 환경교육 목표 분석

북한의 환경교육 목표분석은 환경부(1999)가 제시한 제 7차 교육 과정 환경교육 기본틀을 준거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제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한 학교 환경교육에서의 내용의 계열성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인데, 과학교과의 환경교육 목표인 지식, 기능, 태도, 참여 등의 목표상세화를 북한 환경교육 목표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표 2).

나. 환경교육 내용 분석

환경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환경부(1999)에서 제시한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구, 산업화/도시화, 자원,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 환경위생, 환경윤리,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건전한 소비생활 등 11개영역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표 3).

다.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방안 개발 준거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강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준거로 수행하였다.

첫째, 최영표·한만길(1994)이 제시한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단계의 3단계 교육통합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 교육체제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비정치적 교육 본질적 부문의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한만길 외(2001)가 제시한 교육제도통합-교육과정연계-교육행정연계의 3단계 교육통합 방안이다. 이 모형은 평화공존상태의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환경교육 속에 존재하는 차이와 이념적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3단계 통합 방안을 기본모형으로 제시한다.

4. 자료 처리

분석 도구를 통해 수집된 각 영역별 자료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빈도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북한 중학교 환경교육 특징 분석

가. 환경교육 목표 분석

북한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교육 목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기능, 행동, 참여의 목표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으나, 대부분 환경 지식적인 내용 위주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한 지리 교과의 경우 저학년에서 지리 교과에 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교육 목표 중 지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물 교과의 경우 고학년에서 생태계와 자연보호와 같은 환경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질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환경교육 목표를 지식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면서 기능과 태도, 참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환경교육 내용 분석 준거

영역	내용
1. 자연환경	(1) 자연환경요소, (2) 자연생태계, (3) 지리적 환경
2. 인공환경	(1) 주거와 취락, (2) 교통통신시설, (3) 휴양오락시설, (4) 토지이용
3. 인구	(1) 인구의 성장과 구조, (2) 인구의 이동과 분포, (3) 인구문제와 대책
4. 산업화 / 도시화	(1) 산업의 발달, (2) 산업화의 문제, (3) 도시화, (4) 도시화의 문제
5. 자원	(1) 개념과 종류, (2) 자원문제, (3) 산업화와 자원고갈
6. 환경오염	(1) 수질오염, (2) 토양오염, (3) 소음진동, (4) 대기오염, (5) 식품오염, (6) 악취, (7) 폐기물, (8) 농약피해, (9) 방사능오염
7. 환경 보전과 대책	(1) 자연 및 인공환경 보전, (2) 환경보전의 생활화, (3) 환경정화, (4) 지역 국가 국제수준의 환경 문제와 대책
8. 환경위생	(1) 자연 및 인공 환경과 건강, (2) 환경오염과 질병, (3)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섭취
9. 환경윤리	(1) 환경관, (2) 생물윤리, (3) 환경에 대한 감수성
10. 지속가능발전	(1)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2) 생태적인 지속가능한 사회
11. 건전한 소비 생활	(1) 물품 아껴쓰기, (2)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 (3) 불필요한 광고나 포장 억제, (4) 재활용품 사용하기

* 출처 : 환경부, 1999

<표 4> 환경교육 목표 분석

(단위: 건(%))

학년 및 과목		환경목표	목표			
			K(지식)	S(기능)	A(태도)	P(참여)
중학교	1	지리	25 (69%)	8 (22%)	2 (6%)	1 (3%)
	2	지리	15 (100%)	-	-	-
		생물	24 (86%)	3 (11%)	1 (4%)	-
	3	지리	18 (95%)	1 (5%)	-	-
		생물	6 (75%)	-	1 (13%)	1 (13%)
	4	지리	7 (100%)	-	-	-
		생물	-	-	-	-
	5	지리	17 (55%)	6 (19%)	4 (13%)	4 (13%)
		생물	1 (100%)	-	-	-
	6	생물	19 (79%)	2 (8%)	2 (8%)	1

나. 환경교육 내용 분석

북한 교과서의 환경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첫째, 남한의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이 공해 문제, 자연보전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북한

<표 5> 북한교과서 내용 분석결과

(단위: 건(%))

학년 및 과목		내용분석	내용										
			자연 환경	인공 환경	인구	산업화	자원	환경 오염	환경 보전과 대책	환경 위생	환경 윤리	ESSD	건전한 소비 생활
중 학 교	1	지리	26 (59%)	11 (25%)	1 (2%)	-	1 (2%)	2 (5%)	3 (7%)	-	-	-	-
	2	지리	15 (48%)	-	-	-	8 (26%)	6 (19%)	2 (6%)	-	-	-	-
		생물	25 (78%)	-	-	-	1 (3%)	-	3 (9%)	-	3 (9%)	-	-
	3	지리	18 (78%)	-	-	-	-	4 (17%)	1 (4%)	-	-	-	-
		생물	7 (10%)	-	-	-	-	-	-	-	-	-	-
	4	지리	7 (10%)	-	-	-	-	-	-	-	-	-	-
		생물	-	-	-	-	-	-	-	-	-	-	-
	5	지리	17 (68%)	-	-	-	-	4 (16%)	4 (16%)	-	-	-	-
		생물	1 (10%)	-	-	-	-	-	-	-	-	-	-
	6	생물	20 (80%)	-	-	-	-	3 (12%)	2 (8%)	-	-	-	-

의 경우, 북한의 환경교육 내용은 여전히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교육, 공해 교육이나 자연 보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환경 윤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남한 환경교과에서 다양한 환경 윤리의 범주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북한 교과서에서는 환경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적(anthropocentrism)인 환경 윤리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남한 환경교육과 달리 북한 환경교육은 북한 경제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원 절약과 식량 증산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토양의 보호나 수질 보호 및 환경보전과 간석지와 같은 환경개발의 내용들이 모두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북한 환경 및 환경정책 비교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북한의 환경이 산림, 수질, 대기, 토양 등 전 부분에 걸쳐서 훼손되고 있는 상태임을 제시한다(남영숙 1995a; 남영숙 1995b; Nam, 1997; 조현래·남영숙 1998; 남영숙 2000).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환경을 건강한 자연환경으로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형태의 환경의식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남한의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자본주의 자체를 공해 및 오염과 동일시하고 부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북한 체제 및 북한 환경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가. 통일 이전의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핵심 기초

북한 중학교 생물교과와 지리교과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목표, 내용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북한의 환경교육은 남한의 환경교육과 구별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니고 있었다.

첫째, 고학년의 일부 단원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질문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으나, 환경교육 목표 면에서는 주로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다루고 있었다.

둘째, 북한 환경교육의 내용 분석 결과,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 영역은 자연환경, 자원,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원 절약과 식량 증산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이 환경교육 내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한에서 70~80년대에 주로 다루었던 환경오염과 공해교육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 공해문제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북한 환경의 깨끗함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환경교육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단시간에 통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환경교육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환경교육 기반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남한에서도 북한 환경 및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남북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의 핵심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북한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앞서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경제적·이념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 이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의 속성을 강조한다.

첫째, 환경교육 목표에 있어 북한 체제 이념

이 반영된 환경지식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인식, 태도, 기능, 참여목표를 균형 있게 제기함으로써 탈 이념화를 목표로 하는 중립적인 환경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환경교육의 내용은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환경교육 수준 차이나 이념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법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연환경과 환경문제,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환경교육의 단절 기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자연환경과 주요 환경문제가 남한에서 일반적이고 탈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개발된 북한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내용은 남북한 학술 교류단계 및 통일 이후의 환경교육 통합 이념적 적응 단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 북한 지역중심 환경교육 제공을 위한 학술 교류기반 구축

오늘날 환경교육은 단순한 교과교육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독일의 환경교육 사례에서 나타난 것 같이, 북한 지역의 환경문제와 환경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환경교육은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 단절 기간을 거치는 동안 북한 환경 문제 및 북한 인문/사회적 특성을 북한 지역중심 환경교육 목표와 내용에 반영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북한 지역중심 환경교육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교류와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남북한 환경교육 교류 및 상호이해 방식에서 탈피해 남북한 환경교육 전문가 교류 및 학술 교류가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의 합의된 환경교육목표와 정치나 경제 체제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는 공동의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한 합의를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대한 공통 관점에 대한 논의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환경교육 및 학술교류 지원,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교육 전문가 및 학술교류 지원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영역과 교류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사전에 구축된 전문가 및 학술교류 기반은 통일 이후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간적 물리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통일 이후의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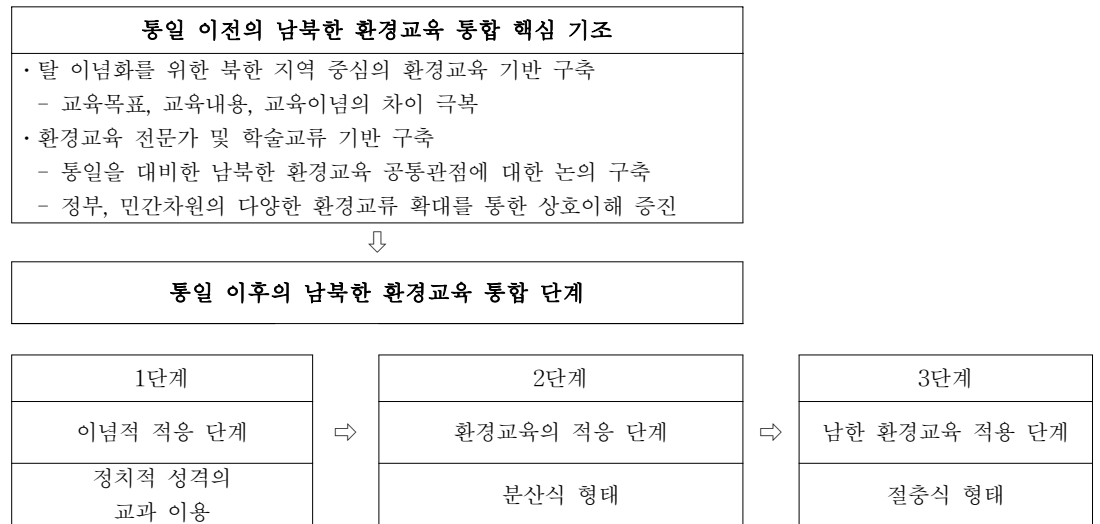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환경교육 속에 존재하는 차이와 이념적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3단계 통합 방안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한다. 이 때 통합 대상이 환경교육 교육 과정임으로 고려해 한만길 외(2001)가 제시한 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행정의 3단계 중 교육 과정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방안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통일 이후의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은 3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념적 적응 단계이다.

통일 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정치적 성격을 띤 교과를 이용하여 이념적인 적응 단계를 밟는다. 환경교육의 목표에 있어 단순히 지식, 인식, 태도, 기능,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방안을 반영하면서도 탈 이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정치적 성격의 교과를 이용함으로써 북한 환경교육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간극을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교육 적응단계로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될 교과에 남북한 통합 환경교육 내용을 분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과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환경교육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육내용의 차이에 대한 적응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절충식 단계로서 남한의 환경교육을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교육 과정 개발자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 후 신속한 교육통합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시에 환경교육적인 요소는 배제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림 2> 남북한 환경교육 통합 방안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환경과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지닌다.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후 예상되는 환경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예방하는 한편, 사회문화·경제·환경윤리에 대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환경교육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환경교육 교류와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통일시대의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북한 환경교육 전문가 및 학술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공과 민간단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교육은 단순한 교과교육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발전비전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환경교육의 통합을 고려하는데 있어 북한의 오염된 환경과 낙후된 환경기술 및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실제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통일 전 구 동독 지역의 낙후된 환경기술 및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 극심한 환경오염은 통일 후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는 통일독일의 환경교육을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이었다(조현래·남영숙, 1997; 조현래·남영숙, 1998; 남영숙, 2000, 남영숙,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낙후된 환경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원원의 남용을 막고 남북한 환경교육에 존재하는 환경관의 차이의 이념적 간극들을 근본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이 연구를 토대로 북한 교과 관련 연구, 통일 교육 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문으로서 환경교육이 향후 통일을 대비한 환경·사회문화·경제 정책적 대안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종권 (2003). 북한 과학교과서 내 환경내용 분석과 통일을 대비한 환경과 통합의 시사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권, 남영숙 (2003). 통일을 대비한 북한 교과서 분석과 환경교과 통합 방안 연구(미발행).

남영숙 (2000).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16(2), 155-169.

남영숙 (1995). 남북한 환경분야 상호협력방안. **환경과 생명**, 7, 48-59.

남영숙, 조현래 (1998). 통일후 환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대전대학교 동북아연구**, 3, 25-44.

남영숙, 조현래 (1997).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 방안. **대전대학교 동북아연구**, 2, 39-56.

남영숙 (2001). 동서독 환경협력 사례. KEI 세미나 발표 자료.

박광서, 정은주, 양일호, 박국태 (2004). 남, 북한 중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3), 481-498.

이수미 (2005). 남·북한 교육 과정 및 중등 교과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희 (1998). 남북한 초등교육 자연교과서의 환경교육내용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덕 (2004).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환경교육 관련 내용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돈형, 김재영, 노석구, 이양락, 전영석 (1998). 남북한 중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영표, 한만길 (199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김형찬, 최영표, 윤종혁, 김정래, 이명준, 박정현 (2001).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한만길 (1996). 민족동질성 회복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전통 문화와 도덕 교육. **도산학술논총**, 5, 295-318.

환경부 (1999). 학교환경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Fuchs, H. W. (1997). Bildung und Wissen-

schaft seit der Wende, Leske+Budrich.

Haan, G. (2002). Umweltbildung. Freie Universitaet Berlin.

Haan, G., and Mann, J., Reid, A. (2000). Educating for Sustainability, Umweltbildung and Agenda 21, Peter Lang.

Nam. Y. (1997).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Unification. 『Zeitschrift für Umweltpolitik & Umweltrecht』. 551-561.

2008년 2월 27일 접수
2008년 5월 11일 심사완료
2008년 5월 13일 게재확정